

---

저자 (Authors)	이용
출처 (Source)	<a href="#">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a> , 2011.8, 53-71(1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구결학회</a> The Society Of Kugyol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8762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87621</a>
APA Style	이용 (2011). 신라이두에 나타난 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3-7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5 14:1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이두에 나타난 丙에 대하여

이 용(류블라대학교)

## 1. 서론

차자표기에 쓰인 표기자들의 독법과 기능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표기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丙’도 이처럼 논란이 있는 표기자 중 대표적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丙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신라시대의 이두에 나타난 것 중 문법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향가, 구결 등을 언급하기는 하겠지만 이두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이두도 주된 논의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에서는 丙의 용법이 불규칙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신라시대의 자료에서는 불규칙적인 용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동안 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丙의 독음과 용법을 일관되고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자료의 특성과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고 본다. 향가, 구결과의 구별도 비슷한 측면을 지닌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은연 중 향가와 이두의 丙가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 점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않았던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라시대의 이두 자료를 대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문법형태 丙의 분포와 의미를 살펴 그 기능을 밝히게 될 것이다.

## 2. 기존 연구 정리

차자표기 丙와 관련된 논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음차로 읽을 것인지 훈차로 읽은 것인지를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기능과 관련된 논의이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선어말어미, 동명사어미, 여러 가지의 문법적 기능을 가진 복합적 어미, 지정문자 등이 있다.

### 2.1 음독과 훈독 관련 논의

음차와 훈차에 관련된 논의는 박성중(2007: 142-147)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음차는 독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白鳥庫吉(1901)에서 제시된 것으로 丙을 nai로 읽은 것이다. 박성중(2007)에서는 이는 일반적으로 전래하는 한자음인 ‘노’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0년 동안 시간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丙의 음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둘째, 鮎貝房之進(1931)에서는 丙의 고음을 누(nū)로 추정하였다. 후대음 ‘노’에 대해서는 丙·惱·腦·弩·儒가 서로 혼용되는 예들을 통해 후대의 한자음 ‘노’이 입증된다고 하였다. 셋째, 金武林(2003)에서는 丙의 고대 음가를 中古 前期 漢語음을 감안하되 圓脣性を 중시하고 韻尾를 탈락시킨 ‘\*nu’로 재구하였다. 후대음 ‘노’에 대해서는 鮎貝房之進과는 달리 10세기 초반 이전 새로운 음가에 의한 교체로 파악하였다. 넷째, 이강로(1989ㄱ, 1989ㄴ, 1990, 1991)가 주장한 것으로, ‘丙’의 본음이자 상고음을 ‘예’로 보고 이것이 우리말 차자표기 과정에서 어말어미에서는 ‘-야’, 접미사로는 ‘-이’ 등의 표기에 원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널리 수용되어 온 견해는 梁柱東(1946: 313-315)에서 설명된 대표음 전용일 것이다. 이는 문법사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문법형태가 이전 시기의 차자표기에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梁柱東(1946: 313-315)은 ‘丙’의 고음은 ‘노, 뇌’인데 향가에서는 음차 ‘ㄴ’ 표기에 쓰인다고 하였다. 이들 중 ‘노’에서 운미가 삭제되어 ‘ㄴ’이 된다는 추정이 대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는 각 차자표기의 특성이나 시대별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일관된 독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강로(1989ㄱ, 1989ㄴ, 1990, 1991)를 제외하고는 15세기국어의 ‘-ㄴ-’에 연결시키고 있다.

훈차자로 본 견해는 대체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金澤庄三郎(1918: 92-93)은 <<无盡寺鐘銘>>(745년)의 ‘敎受丙成記時’를 ‘受けし記を成す時’(받아 기록을 이룰 때)로 풀이하였는데, 여기에서 ‘丙’는 훈차자로서 ‘안’이고 동사의 활용형일 것을 보았다. 이 견해는 小倉進平(1929)에 계승되어 ‘안’에서 말음 ‘-ㄴ’을 생략하여 부사형으로 썼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受丙’를 ‘바디’로 읽었다. 이와 관련하여 鮎貝房之進(1931: 18-20)에서는 丙는 ‘안’으로 읽히는 것으로 보았다. 기능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형 ‘-안, -난’으로 파악하였다. 그 용례로 <<无盡寺鐘銘>>(745년), <<清州蓮池寺鐘銘>>(833년), <<咸通肉年金口銘文>>(865년)을 들었다.

이강로(1991)에서는 일반적으로 丙가 ‘예’로 읽히지만 ‘郡丙, 座丙, 任丙, 貼丙, 文字丙’와 같은 명사류 뒤에서는 ‘얹/안’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는 訓讀字로 본 것이다.

이승재(1992: 164)에서는 ‘令丙弥’<<華嚴經寫經造成記>>(755년), ‘爲丙弥’<<淨兜寺形止記>>(1031년), ‘成丙飛也’<<竅興寺鐘銘>>(856년)의 용례를 제시하면서 ‘丙’를 ‘-습-’에 연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를 연결어미 ‘-弥’ 바로 앞에 시상의 선어말어미 ‘-ㄴ-’나 동명사어미가 ‘-은/은’이 오는 일이 없다는 데서 찾았다. 丙의 새김에는 ‘습’의 뜻도 있다.

훈차에 관련된 연구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징은 丙의 문법적 기능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丙의 문법적 기능에 관해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 2.2. 기능 관련 논의

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또는 부사형 어미, 동명사어미, 지정문자가 그것이다.

선어말어미로 보는 견해는 대체적으로 15세기국어의 ‘-느-’와 연결지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재영(2000)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재영(2000: 76)에서는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초기의 이두나 향가에 사용된 대부분의 ‘內’는 선어말어미 ‘內’로 쓰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진호(2009)에서는 향가의 內를 선어말어미로 보고 그 의미를 [향구적/일반적/보편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선어말어미와 관련하여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신라 향가에는 동명사어미 ‘-은’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隱’이 존재하지만 신라 이두에는 동명사어미 표기 ‘-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기자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라 이두의 ‘內’와 신라 향가의 ‘內’는 다른 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이두의 內를 동명사어미로 파악한 것은 鮎貝房之進(1931)에서 內를 훈차자로 파악하면서 제시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훈차자 內의 기능을 대체로 관형형으로 보았다. 그런데 內가 동명사어미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박성중(2007)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차자표기의 해독과 관련하여 一字一音의 原理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받아들여졌음을 비판하고 이두에서의 內는 동명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內’를 확인법선어말어미와 유사한 형태소와 동명사어미 ‘-느’이 통합된 표기인 것으로 본 점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가 발견된다.

남풍현(2000)에서는 內의 기능을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남풍현(2000: 448-450)에서는 동명사어미, 부사형어미, 선어말어미의 세 가지로 보았다.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內는 그것이 연결된 차자가 고유어로 읽히는 동사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정문자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정문자설은 小倉進平(1929)에서부터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 小倉進平(1929: 38-40)에서는 균여 향가 禮敬諸佛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拜內乎隱’을 ‘빌으온’으로 읽었는데 이 중 ‘內’를 생략하여 ‘拜乎隱’으로 표기하여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결국 별다른 의미 없이 동사 어간 뒤에 첨가되는 것으로 본 셈이다. 이것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 서종학(1995)이다. 여기에서는 ‘內’는 ‘先行하는 借字를 訓讀하라고 지시하는’ 지정문자로 볼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정문자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하다. 박성중(2007: 148)에서 비판처럼, 단순히 지시 또는 부호로서 사용한다면 굳이 ‘內’와 같은 正字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과연 이두에서도 어떤 차자를 訓讀하라는 표시가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두는 향가와 그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문서나 금석문 등에서 ‘成內’, ‘爲內’ 등을 혼독하는 것과 혼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 3. ‘內’의 분포와 기능

#### 3.1. 체언에 선행

(1) 가. 成▶內◀ 願旨者 皇龍寺 緣起法師 爲內 賜 // 이룬 願旨는 …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經之 成▶內◀ 法者 // 이룬 法은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다. 經寫 時中 竝 淳淨爲▶內◀ 新淨衣 禪水衣 臂衣 冠 天冠 等 庄嚴令只者 // 淳淨한 新淨

衣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 라. 佛菩薩 華嚴經 等 供養爲▶內◀ 以後中 坐中 昇 經 寫在如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 마. 當縣 沙害漸村 見▶內◀ 山槎地 周五千七百二十五步 合孔烟十(一) // 沙害漸村을 본 山槎地 <0758 新羅村落文書A촌>
- 바. 當縣 薩下知村 見▶內◀ 山槎地 周万二千八百卅步 <0758 新羅村落文書B촌>
- 사. 西原京□□□村 見▶內◀ 地 周四千八百步 <0758 新羅村落文書D촌>
- 아. 願請內者 豆溫愛郎 靈神賜那 二僧 卽那 若 見▶內◀ 人那 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 隨喜爲內那 // 혹 본 사람이나 // 願하는 것은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 자. 大曆 七年 壬子 四月十八日中 不還 法師 □□ 法師 并 二人 應□□□□ 成▶內◀ 於勒 // 이룬 於勒 <0772 昌寧觀龍寺石佛臺座銘>
- 차. 願爲▶內◀ 等者 種々 施賜 人乃 見聞隨喜爲賜 人乃 皆 無上菩提 成內飛也 // 願하는 것은 <0856 竅興寺鐘銘>
- 카. 咸通 陸歲 乙酉 二月十二日 成▶內◀ □月寺 禁口 <0865 咸通銘禁口>
- 타. 乾符 六年 己亥 五月十五日 禪房寺 塔 練治▶內◀ 記 <0879 禪房寺塔誌石銘>
- 파. 天復 四年 甲子 二月二十日 松山村 大寺 鍾 成▶內◀ 文 // 종을 이룬 글 <0904 松山村大寺鐘銘豊前朝鮮鐘記>

위의 예들에서는 內가 체언 앞에 오고 있다. 체언 앞에 오는 것들은 모두 동명사어미 중 관형적 용법을 가지고 쓰인 것들이다. 內가 관형적 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鮎貝房之進(1931) 이래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문 옆에 제시된 해석들은 남풍현(2000)에서 인용한 것들이다. 인용된 것들은 모두 동명사어미의 관형적 용법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어 시제로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여기서 인용된 텍스트의 대부분이 당시에 구체적 대상물인 佛像, 鐘 등을 만들고 나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1차)는 ‘-는 것’으로 옮기고 있다. [-지시성]으로 파악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願하는’ 과정 자체가 종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면 ‘-은 것’으로 옮기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 예들에 대해서는 동명사어미의 관형적 용법 이외에 다른 것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정문자로 본다면 ‘淳淨爲內’, ‘供養爲內’과 같은 예에서 ‘爲’를 혼독하여 ‘호’로 읽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찾기 어렵다.

### 3.2. 문 종결

- (2) 가. 右念行道爲 作處中 至者 三歸依尔 三反 頂禮爲▶內◀ / 세 번 頂禮하고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 나. 永泰 二年 丙午 七月二日 釋法勝 法緣 二 僧 并▶內◀[격자1]奉 / 二僧이 어울어 받들어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 다. 奉 過去爲飛賜 豆溫哀郎 願爲 石毗盧遮那佛 成▶內◀ / 石毗盧遮那佛을 이루어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 라. 古尸山郡 仁近 大乃末 紫草里 施賜乎 古鍾 金 二百八十廷 當寺 古鍾 金 二百廿廷 此以本 爲▶內◀ //이것으로 本을 삼아 <0804 禪林寺鐘銘>
- 마. 願旨是者 法界 有情 皆 佛道中 到內 去 誓▶內◀ 節 … // 佛道에 반드시 이름을 다짐함 <0804 禪林寺鐘銘>

바. 太和 七年 三月日 菁州蓮池寺 鐘 成▶內◀節 … // 종을 이름 <0833 菁州蓮池寺鐘銘越前敦賀鐘記>

먼저 (가)는 남풍현(2000: 450)에서 연결어미로 본 것이다.<sup>1)</sup> 그러나 문장의 종결을 동명사로 하고 이것을 나열하여 문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면 동명사어미 ‘-니’으로 대응시켜 볼 수는 있다고 하였다.

(나)와 관련해서는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sup>2)</sup> 또한 전문도 옮기기로 한다.

(3)

永泰 二年 丙午 七月二日

釋 法勝 法緣 二僧 并/內

奉 過去爲飛賜 豆溫哀郎 願 爲 石毗盧遮那佛 成/內

無垢淨光陀羅尼 并 石南巖 藪 觀音巖中 在/內如

**해석**

영태 2년 병오 7월2일

석 범승(法勝)과 석 범연(法緣) 두 승이 함께함(함께한 것을)

만들어 돌아가신 두온애랑(豆溫哀郎) 원(願)을 위해 석비로자나불(石毘盧遮那佛)을 이름.

무구정광다라니(無垢淨光陀羅尼)와 함께 석남암사(石南巖寺) 산하의 관음암사(觀音巖寺)에 둔 것이다/두었다.

願請內者

豆溫愛郎 靈神賜那 二僧 卽那

若 見內 人那 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

隨喜爲內那 影中 逕類那 吹尔 逕風 逕所 方處 一切 衆生那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尔 自 毗盧遮那是 卽 覺

去世爲尔 誓內之

**해석**

원하여 바란 것은 두온애랑(豆溫愛郎)의 영신(靈神) 이시거나, 두 승려이거나, 또는 본 사람이거나, 향하여서 정례(頂禮)한 사람이거나, 멀리서 들은 사람이거나, 수희(隨喜)한 사람이거나 그림자 가운데를 지나간 類이거나, 불어서 지나간 바람이 지나간 곳의 모든 곳에 있는 일체의 중생이거나 일체가 모두 삼악도(三惡道)의 업(業)을 멸하여서 스스로 비로자나불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도록 맹세한 것이다.



그림 1 永泰二年銘蠟石製壺

먼저 그림 1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우리는 그림 1을 통해서 內와 奉 사이에 1차 정도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이 공백이 유의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1) 예문들에 달려 있는 해석은 전부 남풍현(2000)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2) 그림1은 <http://tour.busan.go.kr>에서 가져온 것이다. 남풍현(2000: 291)에 나오는 탁본도 좋은 참고가 된다.

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풍현(2000)에서는 이 공백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공백의 의미를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설명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왜 豆溫愛郎의 이름 앞에 격자를 두지 않고 奉의 앞에 격자를 두었느냐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격자를 둔다면 이름 앞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격자를 왜 奉 앞에 두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문장이 丙에서 한 번 끊기고 奉에서 문장이 새로 시작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예로는 <<임신서기석>>의 ‘誓之’의 ‘之’와 ‘월성해자목간(149호)’의 ‘在之’ 다음에 보이는 공백이 있다. <<임신서기석>>에서는 이 공백을 경계로 ‘壬申年’과 ‘辛未年’으로 갈리고 있다. 한편 이 텍스트 7행의 3자 ‘如’와 4자 ‘願’에서도 격자를 발견할 수가 있다. 실제 내용상으로도 종결어미인 ‘-如’의 앞뒤로 텍스트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는 石毗盧遮那佛을 조성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發願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서 丙와 奉 사이에 나타난 공백의 의미를 살펴보면 丙까지는 조성의 주체자가 드러나고 있다.<sup>3)</sup> 따라서 텍스트의 경계와 관련하여 공백을 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월성해자목간(149)’에서도 ‘之’를 경계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풍현(2000)의 설명을 보기로 하자. 남풍현(2000: 296)에서는 “并丙는 고려시대에는 并以로 표기되어 ‘아오로(<아브로>’로 읽힌 것이다. … 并자가 이러한 뜻으로 쓰인 것은 … 新羅의 金石文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并자 단독으로 쓰였고 丙자를 동반한 예는 신라시대의 것으로는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并丙’는 유일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으로는 并丙가 ‘아오로(<아브로>’<sup>4)</sup>로 읽혀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并以에서는 以를 ‘로’에 대응시키면 되지만 并丙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并丙를 ‘아오로(<아브로>’에 대응시키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并丙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并丙가 나온 문장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釋法勝 法緣 두 승일 것 같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8행에 나오는 二僧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여기서 보면 二僧은 서술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의 화자는 따로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누구일까. 이는 아무래도 豆溫哀郎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한 열쇠는 주체존대의 賜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에 豆溫哀郎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두 번 모두 賜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대조적으로 二僧에는 賜의 호응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글의 화자 역시도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을 것임을 암시한다. 시각에 따라서는 二僧이 화자이고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각에는 뚜렷하게 한계가 존재한다. 자기들 스스로를 3인칭인 二僧이라고 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화자는 豆溫哀郎의 子孫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豆溫哀郎의 사후에 그의 원에 따라 자손들이 비로자나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并丙를 ‘아오로(>아브로)’로 보게 되면 釋法勝 法緣 두 승만이 탑을 만드는 데 있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보다는 丙를 동명사어미로 보고 ‘함께함’ 정도로 옮기는 것이 좋다.

3) 영태2년명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釋法勝 法緣 두 스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사리를 넣었던 壺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壺에 이 스님의 사리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4) ‘아브로’는 문중되지 않는 어형이다.

그런데 丙와 奉에 보이는 공백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해석의 문제가 더 간단해진다. 타동사인 奉의 목적어로 동명사어미 丙로 내포된 절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并丙를 ‘아오로(>아브로)’로 보게 되면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비해서 丙를 동명사로 보게 되면 목적어가 문면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2ㄷ)도 <영태2년명석비로자나불조성기>에 나온 것이다.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부분을 현대어로 옮겨 보면 ‘받들어 過去하신 豆溫哀郎 원하여 석비로자나불을 만듭. 무구정광다라니와 함께 석남암사 산하의 관음암사에 둔 것이다(두었다).’ 정도가 된다. 여기서의 ‘成丙’를 ‘-어’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 것은 두 문장의 논리적 연결에 기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장의 정황상 두 문장 사이에 ‘-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논리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연결어미 ‘-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글의 흐름을 볼 때 전개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sup>5)</sup>

(2ㄷ)도 (2ㄷ)과 유사하다. 좀 더 길게 인용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4) 古尸山郡 仁近 大乃末 紫草里 施賜乎 古鍾金 二百八十延<sup>6)</sup> 當寺 古鍾金 二百廿延 此以<sup>7)</sup> 本 爲丙 十方且越 勸爲 成丙 在之 // 골피군 인근 대나말 자초리가 베푼신 고종(古鍾)의 쇠 280정과 당사 고종(古鍾)의 쇠 220정 이것으로써 본을 삼음. 十方의 且越에게 勸하여 이룬 것이 있다/이름이 있었다).

위의 인용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문장에는 자초리가 기증한 古鍾의 쇠 280정과 절 소유 古鍾의 220정을 종을 만들 때 본으로 했다는 내용, 두 번째 문장에는 이것을 十方의 且越에게 권하여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두 개의 내용이 연결어미 ‘-어(서)’에 의해 연결되어야 할 필연성은 현대어의 직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두 내용은 화자가 연결시켜 발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이 둘을 분리하여 파악한 것이다.<sup>8)</sup>

(2마, 바)는 기존에 동명사어미의 관형적 용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丙’로 내포된 관형절이 ‘節’을 꾸미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신라이두에서 節이나 時는

5) 현대국어에서도 유사한 글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철수 7시 30분에 일어남. 8시에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감. 9시에 학교에 도착함. 12시에 수업이 끝남. 1시에 집에 돌아옴.”과 같은 글의 전개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6) 延은 <<上院寺鐘銘>>, <<蓮池寺鐘銘>>, <<廢興寺鐘銘>>에도 쓰였다. ‘延’은 ‘錠’의 생략자로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였다. 1錠은 중국과 일본의 도량형제도를 참고로 추정하면 3근 5량이 된다고 한다.

7) 이를 기존과 달리 띄어서 쓴 것은 다음과 같은 구결의 예를 고려한 결과이다.

嚴飾 ヲヒテ 人 乙 見 當 願 衆生 三十二相 乙 ▶以 以 嚴好 爲 ◀シヒト <화엄05:24>

菩薩 〓 成佛 ヲヒテ 時 十 煩惱 乙 ▶以 以 菩提 爲 ◀シヒト <구인15:18-19>

今ハ 此 義 乙 中 十 意 乙 法 乙 緣 乙 光明 乙 ▶以 以 境界 爲 ◀シヒト 光明想 乙 修 ノ 尸 乙 辯 ノ 十 〓 <유가11:04-05>

여기서의 ‘爲’는 ‘삼-’으로 혼동되는 것이다. 구결 자료에서 보면 ‘삼-’으로 혼동되는 경우에는 ‘NP1 乙 以 以 (ホ) NP2 爲’ 정도의 구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구문에는 후기중세국어나 현대국어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NP2’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NP1’ 뒤에 단순히 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乙 以 以 (ホ)’가 나타나고 있다. ‘以’를 조사로 볼 수는 없다. 앞에 조사 대격조사 ‘-乙’이 나오고 ‘以’ 뒤에는 어미인 ‘;’가 나오기 때문이다. 구결자료에서 혼으로 ‘삼-’을 가지는 ‘爲-’의 경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해석처럼 여기서의 ‘以’를 ‘로’에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실사로 파악하였다.

8) 필자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 丙를 연결어미와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은 중세한글문헌과 관련이 없지 않다. 중세한글문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의 문장이 그 길이에 있어서 현대어와 달리 매우 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라이두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번역문이 주가 되는 중세한글문헌의 문장이 당시의 한국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텍스트 경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이다.<sup>9)</sup> <<禪林寺鐘銘>>에서는 節 뒤에 鐘을 만든 인물들이 길게 소개되고, <<靑州蓮池寺鐘銘>>에서는 節 뒤에 이 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쇠를 모은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남풍현(2000)에서 파악한 것처럼 이들 예는 동명사어미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문 종결 위치에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 3.3. 어미 선행

#### 3.3.1. 종결어미 및 연결어미 선행

- (5) 가. 天寶 十三載 甲午 八月一日 初 乙未載 二月 十四日 一部 周 了 成▶內◀之 // 이루었다<sup>10)</sup>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經心 內中 一收 舍利尔 入▶內◀如 // 넣는다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다. 無垢淨光陀羅尼 并 石南嚴藪 觀音嚴中 在▶內◀如 // 觀音嚴에 둔다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라.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尔 自 毗盧遮那是 等 覺 去世爲尔 誓▶內◀之 // 맹세한다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마. 二月十二日元 四月十三日 此 間中 了 治▶內◀之 // 이 사이에 마치고 수리한 것이다.<sup>11)</sup> / 수리하기를 마쳤다 <0798 永川菁堤碑貞元銘>  
 바. 此中 典大 角助役 切火 押梁 二郡 各 □人尔 起 使▶內◀之 // 일으키어 부리었다 <0798 永川菁堤碑貞元銘>  
 사. 貞元 廿年 甲申 三月廿三日 當寺 鍾 成▶內◀之 // 종을 이루었다 <0804 禪林寺鐘銘>  
 아. 大中 □年 丙子 八月三日 竅興寺 鍾 成▶內◀矣 // 종을 이룬다 <0856 竅興寺鐘銘>  
 자. 並 前內視令 節 植▶內◀之 // 함께 전에 內視令 관장하여 심은 것이다.<sup>12)</sup> <0758 新羅村落文書C촌>  
 (5)' 種々 施賜 人乃 見聞隨喜爲賜 人乃 皆 無上菩提 成▶內◀飛也 節 … <0856 竅興寺鐘銘>  
 (6) 가. 第一 恩 賜 父 願 爲 爲▶內◀彌 第二 法界 一切 衆生 皆 成佛欲 爲賜以 成賜乎 // 삼았으며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楮 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彌 // 生長시키며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다. 前內視令 節 植▶內◀是而 死白 栢子木十三 // 前內視令 때에 심은 것이지만 <0758 新羅村落文書C촌>

이들 예들은 선어말어미와 관련하여 논의된 것들이다. 기존에 內가 선어말어미로 논의되었던 것은 內가 보이는 많은 예들이 이처럼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앞에 위치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어말어미로 볼 때 대체로 석독구결의 ‘ㅿ’, ‘ㅑ’, 15세기국어의 ‘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남풍현(2000)에서 이들 예들이 현재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를 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이 과거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예상에서 벗어나는 듯하다. 또한 (5마)와 (5자)에 대하여 정재영(2000: 82-83)에서는 이들 예는 현재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5마)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되어 있고 (5자)에는 ‘前內視令’이라고 하여 시간적 배경이 드

9) 이두에서 텍스트 경계와 관련하여 파악될 만한 것으로 ‘節, 時’와 같은 어휘, 공백, 종결어미 ‘-之’, 줄바꾸기 등이 있다. 후고를 기약해 본다.

10) 예문 옆에 달려 있는 해석들은 전부 남풍현(2000)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11) 해석은 정재영(2000: 82)에서 인용.

12) 해석은 정재영(2000: 82)에서 인용.

러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종학(1994: 174)의 기술은 핵심을 찌른 듯하다. 여기에서는 선어말어미로 해석되어 왔던 예들에 보이는 모든 서술어는 이론상 과거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실제 이 텍스트들은 특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록된 것들이므로 [+지시성]을 가진 것들로 파악되고 현재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선어말어미로 파악이 되더라도 해석될 때에는 과거 시제에 대응될 것들이지 현재 시제에 대응될 것들이 아니다.

이제 해석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5나)에서는 經心을 짓는 것과 佛菩薩像을 지을 때의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예문을 좀 더 길게 인용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7) 經心 作 佛菩薩像 作 時中 青衣童子 伎樂人 等 除 余 淳淨法者 上 同之 經心內中 一 收 舍利 入內如 // 經心 만들며 佛菩薩像 만들 때 青衣童子, 伎樂人 등을 제외하고 남은 淳淨法은 위와 같다. 經心 內에 一 收 舍利씩 넣은 것이다.

여기서의 內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엄경사경조성기>>는 화엄경 사경을 한 뒤에 화엄경 사경의 조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한 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특정 화엄경 사경에 대한 과정이지 일반적 사경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 기술 대상이 되고 있는 화엄경의 사경이 얼마나 엄격하고 정숙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위에서 인용한 (7)은 일반적인 절차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글의 마지막에 ‘經心匠 大京 能吉 奈麻 / 于古 奈麻’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經心을 만드는 과정이 이 화엄경을 사경할 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經心을 만드는 과정 역시 매우 엄격하고 정숙하였다는 것을 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入內如’는 이 글에서 서술되고 있는 화엄경의 경심에 사리를 넣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經心에 사리를 넣은 것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는 사리를 넣는 것이 정성을 다한 행위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나)와 (5라)는 박성중(2007)에서 ‘內’를 확인법 선어말어미와 유사한 형태소 ‘아’와 동명사어미 ‘-ㄴ’의 결합으로 가설을 세워 보았던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준다. 이 예들은 모두 타동사의 예들이 아니라 비타동사의 예들이기 때문이다. 비타동사라면 15세기국어에서는 ‘-거-’와 결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3)</sup>

(5라)와 관련해서는 동명사어미의 문중결 용법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앞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願請은 豆溫哀郎의 것이다. 이것은 ‘過去爲飛賜 豆溫哀郎 願 爲’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願請의 원래 주체였던 豆溫哀郎이 죽은 인물이라는 것은 ‘過去爲飛賜’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願請內者’은 ‘원하고 바란 것은’으로 해석되고 ‘誓內之’은 ‘맹세한 것이다’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5바) 역시도 과거의 일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마)가 과거의 일이므로 (5바) 역시도 과거의 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成內가 이미 불상이 이루어진 것을 기술한다면

13)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석독구결에서 ‘거/어’의 구별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15세기국어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거-’는 타동사와 비타동사에 모두 결합하지만 ‘-어-’는 타동사에만 결합한다. 중요한 것은 ‘-어-’는 그 예가 극히 적다. 이용(1997)을 참조.

‘在內如’ 역시도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기술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sup>14)</sup>

(5가, 사, 아)는 成內가 종결어미 앞에 선행한 예들이다. 논의의 편의상 이들 예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해석을 달기로 한다.

(8) 가. 天寶 十三載 甲午 八月一日 初 乙未載 二月 十四日 一部 周了 成內之 / 天寶 13년 甲午 8월1일 초 乙未년 2월 14일 一部를 두루 마쳐 이룬 것이다.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貞元 廿年 甲申 三月 廿三日 當寺 鍾 成內之 / 貞元 20 甲申(804)년 3월 23일에 當寺 鍾을 이룬 것이다. <0804 禪林寺鐘銘>

다. 大中□年<sup>15)</sup> 丙子 八月三日 竅興寺 鐘 成內矣 / 大中□년 병자(856년) 8월3일 규흥사 鐘을 이룬 것이다. <0856 竅興寺鐘銘>

위의 예들 중 (가)와 (나)는 남풍현(2000)에서 ‘이루었다’로 해석된 것들이다. (다)는 ‘이룬다’로 해석되었다. 이 글들은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쓴 것들이다. (가)는 화엄경을 사경한 일이 끝난 뒤에 쓴 것이고 (나, 다)는 鍾을 만들고 나서 쓴 것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완성된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 예는 과거와 관련을 지어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內의 문법적 범주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하나는 선어말어미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명사어미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선어말어미로 보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그것은 여기서 ‘內’가 현재가 아니라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과거]의 의미를 가진 선어말어미라면 문법사적 연속성에서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內에 대한 선어말어미설은 15세기국어의 ‘-느-’와 맞닿아 있는데 15세기 당시 ‘-느-’는 시제로 볼 때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內를 선어말어미로 보아서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현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sup>16)</sup> 또한 서종학(1994: 177)에서 지적한 것처럼 ‘內飛’의 연결 구성을 설명하기도 어렵고<sup>17)</sup> ‘爲內那’를 ‘흐느나’로 해독할 수도 없을 것이다.<sup>18)</sup>

그런데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內를 선어말어미로 본 것은 계사의 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명사어미와 종결어미 사이에는 계사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內가 동명사어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서 계사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 예들은 신라이두에서 계사가 표기된 예들이다.

(9) 가. 前內視令 節 植內是而 死白 栢子木 十三 // 前內視令 때에 심은 것이지만 주었다 아된 栢子木 13 <0758 新羅村落文書C촌>

나. 自 毗盧遮那是 覺 去世爲尔 誓內之 // 스스로 비로자나불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도록 맹세한 것이다.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成內’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15) 大中은 唐 宣宗의 연호이다. 10년이 丙子년에 해당하므로 이 종명에 나오는 것과 일치한다. 신라 文聖王 18년인 856년이다.

16) 김영욱(1999), 정재영(2000) 등에서는 선어말어미 ‘-臥(卜)-’, ‘-內-’, ‘-飛(ㄷ)-’가 합류하여 중세국어의 ‘-느-’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17) ‘內’를 선어말어미로 보는 경우에는 이 구성을 두 형태소가 교체되는 과도기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18) 15세기국어에는 ‘흐느나’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베푸신 사람이거나 見聞隨喜(보고 듣고 따라 기뻐)하신 사람이거나 모두 無上菩提를 이루는 것이다. <0856 竅興寺鐘銘>

이 예에서는 內와 飛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예는 ‘內’를 15세기국어의 ‘ㄴ’와 관련시키는 데 있어 적절한 반증례가 된다. 일반적으로 ‘飛’는 15세기국어의 ‘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개의 선어말어미가 중복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의미상으로도 ‘成內飛也’는 ‘飛’의 의미를 살려 ‘이루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成內飛也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용언+內+(계사)+飛+也’로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계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더욱이 문법적 요소들을 살려서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박성중(2007: 160)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본다. 이 논의에서는 內飛와 유사한 구성인 ‘內臥’를 설명하면서 여기서의 內를 관습적인 표기법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 바가 있다. 15세기말까지의 조선초기 이두에서 ‘內臥’의 용례는 7회가 나오는데 모두 용언 ‘望’과 결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內’는 아무런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成內飛也’의 內역시도 관습적인 표기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것 중의 하나는 <<0856 竅興寺鐘銘>>이 신라이두 중에서 비교적 늦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습적인 표기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제부터는 (6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13) 經之 成內 法者 楮 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弥 然後中 若楮皮脫那 … 佛菩薩像筆師 走使人那 菩薩戒 授令弥 齊 食弥 右 諸人等 若大小便爲哉 若臥宿哉 若食喫哉 爲者 香水 用尔 沐浴令只但 作作處中 進在之 / 經의(을) 이룬 법은, 닳나무는 뿌리에 香수를 뿌려서 生長케 한 것이며 然後에 닳나무껍질을 벗기거나(벗기는 사람이나) … 佛菩薩像筆師와 走使人이나 (모두) 菩薩戒를 받게 하며 齊 食하며, 위 여러 사람들이 대소변하거나(보거나) 누워 자거나 마시고 먹거나 하면 향수를 써서 목욕케 하고서야만 작업하는 곳곳에 나아갔다.

<<화엄경사경조성기>>에 나오는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좀 길게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楮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弥’는 ‘다나무 뿌리에 香수를 뿌려서 生長시키며’ 정도로 이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는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뒤의 문장에는 피사동주(若楮皮脫那 … 佛菩薩像筆師 走使人那)가 나오는데 ‘楮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弥’에는 피사동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피사동주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피사동주를 ‘楮’라고 상정했을 때 ‘저나무를 저나무 뿌리에 향수를 뿌려서 생장케 하며’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生長令內弥를 內를 살려서 ‘생장케 한 것이며’로 해석하였다. 이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화엄경을 사경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보아 ‘생장시키며’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것들은 화엄경의 사경이 끝난 뒤에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용문의 마지막에 있는 ‘進在之’의 ‘在’<sup>21)</sup>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다.

自毗盧遮那是 覺 去世爲尔 誓內之”

21) 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나 완료와 관련을 지어 논의하고 있다.

### 3.4. 수량 관련어 선행

여기서 수량 관련어라고 한 것은 매우 편의적인 용어이다.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예는 <<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들 뒤에는 수사가 나온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內’의 바로 뒤에 수사가 나오는 유형만이 있지는 않아서 이 용어를 써서 정리한다.

#### 3.4.1. 수사 선행

- (14) 가. 合桑 千四[以 三年間中 加植▶內◀ 九十 古有 九百十四] <0758 新羅村落文書A촌>  
 나. 合栢子木 百廿[以 三年間中 加植▶內◀ 卅四 古有 八十六] <0758 新羅村落文書A촌>  
 다. 合秋子木 百十二[以 三年間中 加植▶內◀ 卅八 古有 七十四] <0758 新羅村落文書A촌>  
 라. (合桑 千)二百八十[以 三年間中 加植▶內◀ 百八十九 古有 千九十一] <0758 新羅村落文書B촌>  
 마. 合桑 千二百卅五[以 三年間中 加植▶內◀ 六十九 古有 千百六十六] <0758 新羅村落文書D촌>  
 바. 合栢子木 六十八[以 古有 六十 三年間中 加植▶內◀ 八] <0758 新羅村落文書D촌>

이 유형들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듯하다. ‘더하여 심은 것(加植內)+ 수사’의 유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더하여 심은 90그루(加植內 九十)’ 식의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래 체언 선행 유형과 비교해 보면 ‘더하여 심은 것+ 수사’의 유형이 좋을 듯하다.

#### 3.4.2. 체언 선행

- (15) 가. 三年間中 收坐▶內◀ 烟 一 合人百廿二十五 <0758 新羅村落文書B촌>  
 나. 三年間中 加收▶內◀ 合人 七 <0758 新羅村落文書B촌>  
 다. 收坐▶內◀ 烟 合人 四[以助子一 老公一 丁女二] <0758 新羅村落文書B촌>  
 라. 三年間中 新收坐▶內◀ 烟 一 合人(七十二)六十九 <0758 新羅村落文書C촌>  
 마. 三年間中 新收▶內◀ 合人 七 <0758 新羅村落文書C촌>  
 바. 三年間中 新收內 合人 七 以 列收▶內◀ 小女子 一 收坐內烟合人 六 <0758 新羅村落文書C촌>  
 사. 三年間中 新收內 合人 七 以 列收內 小女子 一 收坐▶內◀ 烟 合人 <0758 新羅村落文書C촌>  
 아. 三年間中 列收▶內◀ 合人 四 <0758 新羅村落文書D촌>

이 유형은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동사+內+烟+ 수사’(15가, 다, 라)의 유형과 ‘동사+內+合人+ 수사’(15나, 마, 바, 사, 아)의 유형이다. 이때 전자의 유형은 해석에 있어 문제가 없다. ‘거두어 앉힌 연 1(收坐內 烟 一)’처럼 해석이 된다. 內는 관형적 용법을 가지는 셈이다. 후자의 유형은 두 가지의 해석 가능성이 있다. ‘加收內 合人 七’에 대해 ‘더하여 거둔 합인 7’과 ‘더하여 거둔 것을 합한 인원은 7’ 정도의 해석이 있다. (14)의 예문들과 ‘동사+內+烟+ 수사’ 유형들을 고려했을 때 통사적 구조는 ‘더하여 거둔 합인 7’ 정도로 보는 것이 좋다. 이들의 구조는 ‘동사+內+ 체언+ 수사’로 도식화할 수 있을 듯하다.

(16)

加植內 九十: 동사+內+Φ+ 수사

收坐內 烟 一: 동사+ 內+ 烟+ 수사  
 加收內 舍人 七: 동사+ 內+ 舍人+ 수사

### 3.5. 용언 선행

- (17)가. 天寶 四載 乙酉 思仁大角干 爲賜 夫只山村 无盡寺 鍾 成 教 受▶內◀ 成 記 時 … /  
 鍾을 이루라는 지시를 받아 이름 <0745 无盡寺鐘銘>  
 나. 成內 願旨者 皇龍寺 緣起法師 爲▶內◀ 賜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다. 十方 且越 勸爲 成▶內◀ 在之 / 이루었다 <0804 禪林寺鐘銘>  
 라. 願旨是者 法界 有情 皆 佛道中 到▶內◀ 去 誓內 時 … / 佛도에 반드시 이름을 다짐한다 <0804 禪林寺鐘銘>

(17가)부터 하나씩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鍾 成 教 受內 成]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두 번의 成 중에서 두 번째 成이다. 이 成은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受內’를 부사형어미로 보는 입장에서는 목적어인 ‘鍾’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成’의 목적어로 구체적 물건을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에서는 문면에 보이지 않는 鍾을 목적어로 상정하는 것보다는 문장에 드러나 있는 동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인다고 본다. 그러므로 괄호매김은 [[鍾 成 教 受內] 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17나)는 기존에 선어말어미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선어말어미로 해석하였던 內의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예는 ‘賜’ 앞에 ‘內’가 온 유일례인데 이러한 결과는 여기서의 ‘賜’가 선어말어미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賜’ 뒤에 ‘-니’이 생략되었다고 보고 ‘-니’을 연결어미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보다는 ‘賜’를 동사로 보고 앞에 있는 ‘爲內’이 동명사어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은 것을 주셨으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17다) 역시도 기존에 선어말어미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선어말어미로 보았던 ‘內’의 예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곤란함이 있었다. 그것은 ‘在’와 ‘內’가 의미상 충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在’는 과거나 완료와 연관되어 논의되었다.<sup>22)</sup> 이것은 ‘內’가 과거와 관련된 현재와 관련된 둘 다 문제가 된다. 현재와 관련된다면 의미상 충돌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과거와 관련된다면 둘이 어떻게 다른지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內’를 동명사어미로, ‘在’를 용언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7라)는 기존에 ‘到內去 誓內’로 끊어 읽었다. 여기에는 ‘內’의 처리와 ‘去’의 처리가 문제가 되었다. ‘去’를 선어말어미 ‘去’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 ‘內’ 역시도 선어말어미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때는 ‘去’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남풍현(2000)에서는 ‘去’를 확인법의 어말어미로 보았다. ‘去’가 어말어미였다가 후대에 선어말어미로 변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말어미가 선어말어미가 된 예로는 ‘-어 잇->-엿->-엇-’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에서는 어말어미가 선어말어미의 일부가 된 것이지 어말어미 자체가 선어말어미로 변한 것은 아니다.

남풍현(2000: 324)에서는 ‘去’의 예로 제시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去 뒤에 오는 동사들이 공통점을 갖는다.

22) 박진호(1998), 김영옥(1999) 등을 참조.

(18) 가. 天禧 二年 歲次 壬戌 五月初七日 身病以 遷世爲去 在乙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나. 酬答 毛冬教 功業是去 有在 等以 <1262 柳璈功臣錄券>

다. 專權 擅命爲如乎 事是去 有而亦 王室乙 廢殆令是白乎 所 無齊 <1262 柳璈功臣錄券>  
라. 下宣旨 教 事是去 有等以 <1357 白巖寺貼文>

(18가)는 ‘在’가, (나, 다, 라)는 ‘有’가 ‘去’ 뒤에 오고 있다. 모두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반면에 (17라)에서는 뒤에 ‘贅’가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풍현(2000)에서는 去의 분포가 자유로웠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라이두에서 去가 어말어미로 쓰인 예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到內을 동사(到)+ 동명사어미(內)의 결합으로 보고 去는 동사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 될 듯하다.

### 3.6. 기타

(19) 가. 願請▶內◀者 豆溫愛郎 靈神賜那 二僧♣那 若 見內 人那 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 隨喜爲內那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廬遮那佛造像記>

나. 貞元 二年 丙寅 五月十一日 猪坪[ネ-卜] 香 藏▶內◀ 不印 <0786 靈巖西鳩林里埋香碑銘>\_미정

(19가)는 주제의 보조사 앞에 명사적 용법의 동명사어미 ‘內’가 온 것이다. (19나)는 동명사어미임이 확실하지만 문종결의 역할을 하는지 관형적 용법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예이다. 여기서 ‘不印’이 뜻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 4. 결론

발표로 대신함

##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口訣研究』 10, 구결학회, 223-252.
- 金永萬(1989), 「迎日冷水里新羅碑의 語文學의 考察」, 『迎日冷水里新羅碑의 綜合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會.
- 김영옥(1999), 「전기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先淸語文』 27, 719-751.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 南豊鉉(2000), 『吏讀研究』, 太學社.
-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朴盛鍾(2007), 「吏讀字 內의 讀法」, 『口訣研究』 19, 구결학회, 139-170.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09), 「先語末語尾 ‘-느-’ 다시 보기」, 『구결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중학(1994),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 양주동(1965), 『古歌研究』, 일조각, [朝鮮古歌 研究(1942)의 증보판].
- 이강로(1989ㄱ), 「차자표기에 쓰인 ‘內’자에 대한 연구(1)」, 『한글』 203, 한글학회, 7-24.
- 이강로(1989ㄴ), 「차자표기에 쓰인 內(예)에 대한 연구(2)」, 『한글』 205, 한글학회, 19-51.
- 이강로(1990), 「대명률직해 이두의 하임법 사내(使內)의 연구」, 『동방학지』 6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269.
- 이강로(1991), 「차자표기에 쓰인 內(예)에 대한 연구(3)」, 『한글』 211, 한글학회, 5-44.
-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 이용(1999), 「석독구결의 선어말 어미 ‘-ㄴ-’에 대하여」, 형태론 1-1, 형태론연구회, 107-120.
- 이용현(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 정재영(2000),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느-’와 그 변화」, 『형태론』 2-1, 박이정, 73-105.
- 제리 노먼/전광진(역)(1996), 『중국어언어학총론』, 동문선.
- 金澤庄三郎(1918), 「吏讀의 研究」, 『朝鮮學報』 4月號, 71-99.
- 白鳥庫吉(1901), 「再び朝鮮의 古語に就いて」, 『言語學雜誌』 2-1, 13-32.
-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鮎貝房之進(1931), 『雜考』 第1輯,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22.

[부록] 신라이두에 ‘內’가 나온 例文과 解釋

- 天寶 四載 乙酉 思仁大角干 爲賜 夫只山村 无盡寺 鐘 成 教 受▶內◀ 成 記 <0745 无盡寺鐘銘>  
天寶 4년 乙酉에 思仁大角干께서 삼으신, 夫只山村 无盡寺 鍾 이루라는 教 받은 것을 이루고 기록한다.
- 天寶 十三載 甲午 八月一日 初 乙未載 二月 十四日 一部 周了 成內之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天寶 13년 甲午 8월1일 초 乙未년 2월 14일 一部를 두루 마쳐 이룬 것이다.
- 成▶內◀ 願旨者 皇龍寺 緣起法師 爲▶內◀ 賜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이룬 願旨는 皇龍寺 緣起法師가 만든 것을 주셨으니
- 第一 恩 賜 父 願 爲 爲▶內◀ 弥 第二 法界 一切 衆生 皆 成佛欲 爲賜以 成賜乎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첫째는 은혜 주신 아버님의 願을 위하여 삼은 것이며 둘째는 法界의 一切 衆生이 모두 成佛하고자 하심으로 이루셨음.

5. 經之成▶內◀ 法者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경의 이룬 법은

6. 楮 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 弥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닥나무는 뿌리에 香水 뿌리어서 生長시킨 것이며

7. 經寫 時中 並 淳淨爲▶內◀ 新淨衣 禪水衣 臂衣 冠 天冠 等 庄嚴令只者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경 베낄 때에 모두 순정한 신정의의 곤수의, 비의, 관, 천관, 등으로 장엄하게 하면

8. 右念行道爲 作處中 至者 三歸依尔 三反 頂禮爲▶內◀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위처럼 생각하고 行道하여 짓는 곳에 이르면 三寶에 귀의하여서 세 번 정례함.

9. 佛菩薩 華嚴經 等 供養爲▶內◀ 以後中 坐中 昇 經 寫在如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佛菩薩, 華嚴經 등을 공양함. 이후에 자리에 올라 경을 베낀 것이다.

10. 經心 內中 一收 舍利尔 入▶內◀ 如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經心 內에 一收 舍利씩 넣은 것이다.

11. 當縣 沙害漸村 見▶內◀ 山槿地 周五千七百二十五步 合孔烟十(一) <0758 新羅村落文書A촌>

당현 沙害漸村에서 관할하는 山槿地는 모두 5,720보로 합한 孔烟은 11

12. 合桑 千四[以 三年間中 加植▶內◀ 九十 古有 九百十四] <0758 新羅村落文書A촌>

합한 뽕나무는 1,004그루[이 중에서 3년 사이에 더하여 심은 것은 90그루, 예부터 있던 것은 914그루]

13. 合栢子木 百廿[以 三年間中 加植▶內◀ 卅四 古有 八十六] <0758 新羅村落文書A촌>

합한 栢子木은 120그루[이 중에서 3년 사이에 더하여 심은 것은 34그루, 예부터 있던 것은 86그루]

14. 合秋子木 百十二[以 三年間中 加植▶內◀ 卅八 古有 七十四] <0758 新羅村落文書A촌>

합한 秋子木은 112그루[이 중에서 3년 사이에 더하여 심은 것은 38그루, 예부터 있던 것은 74그루]

15. 當縣 薩下知村 見▶內◀ 山槿地 周万二千八百卅步 <0758 新羅村落文書B촌>

당현 薩下知村에서 관할하는 山槿地는 모두 12,830보

16. 三年間中 收坐▶內◀ 烟 一 合人 百廿二十五 <0758 新羅村落文書B촌>

3년 사이에 거두어 앉힌 烟은 1, 합인은 125명

17. 三年間中 加收▶內◀ 合人 七 <0758 新羅村落文書B촌>

3년 사이에 더하여 거둔 합인은 7

18. 收坐▶內◀ 烟 合人 四[以助子一 老公一 丁女二] <0758 新羅村落文書B촌>

거두어 앉힌 烟의 합인은 4[이 중에서 助子 1 老公 1 丁女 2]

19. (合桑 千)二百八十[以 三年間中 加植▶內◀ 百八十九 古有 千九十一] <0758 新羅村落文書B촌>

합한 뽕나무는 1,280그루[이 중에서 3년 사이에 더하여 심은 것은 189그루, 예부터 있던 것은 1,091]

20. 三年間中 新收坐▶內◀ 烟 一 合人(七十二)六十九 <0758 新羅村落文書C촌>

3년 사이에 새로 거두어 앉힌 烟은 1, 합한 인원은 69명

21. 三年間中 新收▶內◀ 合人 七 <0758 新羅村落文書C촌>

3년 사이에 새로 거둔 합인은 7명

22. 三年間中 新收內 合人 七 <0758 新羅村落文書C촌>

3년 사이에 새로 거둔 합인은 7

23. 三年間中 … 收坐▶內◀ 烟 合人 六 <0758 新羅村落文書C촌>

3년 사이에 … 거두어 앉힌 烟은 합인 6명

24. 並 前內視令 節 植▶內◀ 之 <0758 新羅村落文書C촌>

모두 前內視令 때에 심은 것이다.

25. 前內視令節 植▶內◀是而 死白 栢子木十三 <0758 新羅村落文書C촌>

前內視令 때에 심은 것이지만 죽었다 아된 栢子木 13그루

26. 西原京□□□村 見▶內◀地 周四千八百步 <0758 新羅村落文書D촌>

西原京 □□□村에서 관할하는 땅은 모두 4,800보

27. 三年間中 列收▶內◀合人 四 <0758 新羅村落文書D촌>

3년 사이에 열에서 거둔 합인은 4명

28. 合桑 千二百卅五[以 三年間中 加植▶內◀ 六十九 古有 千百六十六] <0758 新羅村落文書D촌>

합한 뽕나무는 1,235그루[이 중에서 3년 사이에 더하여 심은 것은 69그루, 예부터 있던 것은 1,166그루]

29. 合栢子木 六十八[以 古有 六十 三年間中 加植▶內◀ 八] <0758 新羅村落文書D촌>

합한 栢子木는 68그루[이 중에서 예부터 있던 것은 60그루, 3년 사이에 더하여 심은 것은 8그루]

30. 永泰 二年 丙午 七月二日 釋法勝 法緣 二 僧 并▶內◀[격자1]奉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영태 2년 병오 7월2일 석 법승(法勝)과 석 법연(法緣) 두 승이 함께함.

31. 奉 過去爲飛賜 豆溫哀郎 願爲 石毗盧遮那佛 成▶內◀[격자1]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받들어 돌아가신 두온애랑(豆溫哀郎) 원(願)을 위해 석비로자나불(石毗盧遮那佛)을 이룸.

32. 無垢淨光陀羅尼 并 石南巖巖 觀音巖中 在▶內◀如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무구정광다라니(無垢淨光陀羅尼)와 함께 석남암사(石南巖寺)의 숲에 있는 관음암(觀音巖)에 둔 것이다/두었다.

33. 願請▶內◀者 豆溫愛郎 靈神賜那 二僧 若 見▶內◀人那 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 隨喜爲▶內◀那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원하여 바란 것은 두온애랑(豆溫愛郎)의 영신(靈神)이시거나 두 승려들이거나 이것을 본 사람이거나 향하여서 정례(頂禮)한 사람이거나 멀리서 들은 사람이나 수희(隨喜)한 사람이거나

34.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尔 自 毗盧遮那是 等 覺 去世爲尔 誓▶內◀之

일체가 함께 삼악도(三惡道)의 업(業)을 멸하여서 스스로 비로자나불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도록 맹세한 것이다.

35. 大曆 七年 壬子 四月十八日中 不還 法師 □□ 法師 并 二人 應□□□□ 成▶內◀ 旃勒 <0772 昌寧觀龍寺石佛臺座銘>

대曆 7년(壬子) 4월18일에 不還 법사, □□ 法師가 함께하여 2인이 (應 … ) 이룬 旃勒.

36. 貞元 二年 丙寅 五月十一日 猪坪[ネ-卜] 香 藏▶內◀ 不印 <0786 靈巖西鳩林里埋香碑銘>

貞元 2년(丙寅) 5월11일 猪坪[ネ-卜]에 향을 저장함. 不印.

37. 二月十二日元 四月十三日 此 間中 了 治內之 <0798 永川菁堤碑貞元銘>

2월12일부터 4월13일 이 사이에 마치어 다스린 것이다/다스렸다.

38. 此中 典大 角助役 切火 押梁 二郡 各 □人尔 起使內之 <0798 永川菁堤碑貞元銘>

이 가운데 典大等과 角助役은 切火 押梁 二郡 각 □인씩 일으켜 부린 것이다/부리었다.

39. 貞元 廿年 甲申 三月廿三日 當寺 鍾 成▶內◀之 <0804 禪林寺鐘銘>

貞元 20년(甲申) 3월 23일에 當寺 鍾을 이룬 것이다.

40. 古尸山郡 仁近 大乃末 紫草里 施賜乎 古鍾 金 二百八十延 當寺 古鍾 金 二百廿延 此以 本 爲▶內◀ <0804 禪林寺鐘銘>

골피군 인근 대나말 자초리가 베푸신 고종(古鍾)의 쇠 280정과 당사 고종(古鍾)의 쇠 220정 이것으로써 본을 삼음.

41. 十方 且越 勸爲 成▶內◀ 在之 <0804 禪林寺鐘銘>  
 十方의 且越에게 勸하여 이룸이 있다.
42. 願旨是者 法界 有情 皆 佛道中 到▶內◀ 去 誓▶內◀ <0804 禪林寺鐘銘>  
 願旨인 것은 法界의 有情이 모두 佛道에 이룸에 가기를 맹세한 것.
43. 太和 七年 三月日 靑州蓮池寺 鐘 成▶內◀ 節 … <0833 靑州蓮池寺鐘銘越前敦賀鐘記>  
 太和 7년 3월 일 靑州蓮池寺 종을 이룸. 이때 …
44. 大中 □年 丙子 八月三日 竅興寺 鐘 成▶內◀矣 <0856 竅興寺鐘銘>  
 대중 □년(丙子) 8월3일 규흥사 종을 이룬 것이다/이루었다.
45. 願爲▶內◀ 等者 種々 施賜 人乃 見聞隨喜爲賜 人乃 <0856 竅興寺鐘銘>  
 서원한 것은 여러 가지 베푸신 사람이거나 見聞隨喜(보고 듣고 따라 기뻐)하신 사람이거나
46. 種々 施賜 人乃 見聞隨喜爲賜 人乃 皆 無上菩提 成▶內◀飛也 <0856 竅興寺鐘銘>  
 모두 無上菩提를 이루는 것이다.
47. 咸通 陸歲 乙酉 二月十二日 成▶內◀ □月寺 禁口 <0865 咸通銘禁口>  
 咸通 6년(乙酉) 2월12일 이룬 □月寺 禁口.
48. 乾符 六年 己亥 五月十五日 禪房寺 塔 練冶▶內◀記 <0879 禪房寺塔誌石銘>  
 乾符 6년(己亥) 5월15일 선방사 탑을 연치한 記.
49. 天復 四年 甲子 二月二十日 松山村 大寺 鍾 成▶內◀文 <0904 松山村大寺鐘銘豊前朝鮮鐘記>  
 天復 4년(甲子) 2월20일 松山村 大寺의 鍾을 이룬 글.